

중복상장 가이드라인 발표, 상장을 위한 '패스키'가 아닌 이유

2026-07-1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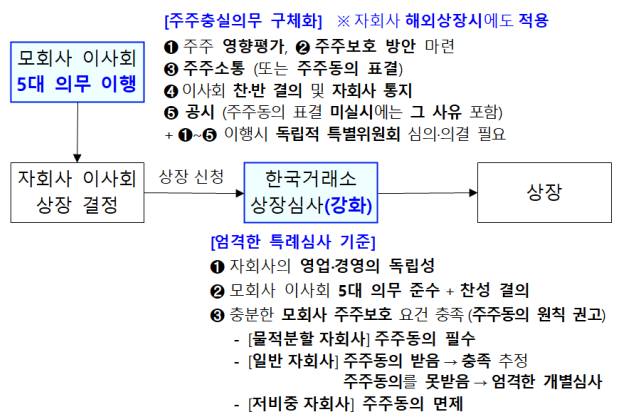
- 중복상장 = 상장 모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인 비상장회사가 신규 상장하는 것
-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인 종속회사 또는 수직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(20% 이상 자회사, 50% 초과 손자회사 등)들이 해당
-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의 대전제, 원칙적 금지이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만큼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
- 모회사 이사회, 중복상장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에 미치는 영향 크기 때문에 5대 의무사항 이행 필요
- 자회사는 영업(유사성, 독자성, 의존도 등) 및 경영 독립성(독립적 이사회/경영진)에 대한 엄격한 심사 진행
- 모회사는 주주 보호 노력에 대한 주주동의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권고, 참여주식 과반 찬성, 발행주식 총수의 1/4 이상 찬성으로 의결
- 물적분할 자회사 또는 중요 자회사 아닌 저비중 자회사(매출, 영업이익, 자산 비중 10% 미만)는 주주동의 면제
- IPO를 염두에 둔 형태의 자금 조달해 왔던 기업들의 경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경영계획 수립에 긍정적인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
- 하지만 단기간 다시 상장예비심사 청구 기업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,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대한 충분한 유권해석 기간 및 기준 충족을 위한 사전 작업 시간 등이 필요하고, 실제 심사사례 등을 참고하기 위한 눈치싸움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
- 무엇보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기준 충족 자회사들의 부문별한 중복상장을 위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될 것
- 기존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주식 발행으로 인한 주주가치 희석을 자제하기 위한 움직임 보인 것,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세계적으로 각광 받고 있는 여러 이유 중 하나

중복상장시 주주총실의무에 기반한 구체적의무(5대 의무사항) 부과

모회사 일반주주 영향평가	- 자회사 상장에 따른 주가 디스카운트 가능성, 지분 변동 - 자회사 기업가치 변화 가능성,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등
주주 보호 방안 마련	- 주주 권익 저해 우려 등 보완할 주주 보호 방안 마련 - 이행시점, 수단, 조건 등 특정한 구체적 실현 가능 계획
주주소통 또는 주주동의 여부 확인	- 일반주주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 제공, 주주 의견 수렴 - IR, 온/오프라인 주주 간담회 등, 의견 수렴 결과 반영
찬/반결의 자회사 통지	- 주주 영향 평가 결과, 주주 보호 방안, 주주소통 및 주주동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 찬/반결의 진행
관련 정보의 공시	- 영향평가, 보호방안, 소통 및 동의 여부 등 공시 - 주주동의 여부 확인 거치지 않은 경우 이유도 함께 공시

자료: 한국거래소, SK증권

중복상장 제도 개선 개요



자료: 한국거래소, SK증권

COMPLIANCE NOTICE

작성자인(나승두)은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항이 아닙니다.
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 투자판단 3단계 (6개월 기준) 15% 이상 > 매수 / -15% ~ 15% > 중립 / -15% 미만 > 매도